

자동차

현대차/기아차 10월 미국 인센티브 (Autodata)

자동차/타이어

Analyst 김준성
02. 6098-6690
joonsung.kim@meritz.co.kr

현대차/기아차 10월 미국 인센티브 (Autodata)

▶ 현대차 대당 평균 \$2,668 (-11% YoY)

- 재고 축소에 힘입어 Sedan \$2,510 (-7% YoY), 신차 효과에 힘입어 SUV \$2,820 (-13% YoY) 기록

- 신차 출시한 싼타페 \$2,604 (-23% YoY), 20개월 연속 YoY 판매증가 기록 중인 투싼 \$3,241 (+1% YoY)

- 가파른 재고 감축 실현한 아반떼 \$2,544 (-2% YoY), 쏘나타 \$2,825 (-11% YoY)

▶ 기아차 대당 평균 \$3,749 (+3% YoY)

- 주로 F/L 모델 출시가 많은 상황이기에 아직은 인센티브 증가세. 재고 감축 이루어진 Sedan \$3,503 (-4% YoY), 신차 효과가 아직인 SUV \$4,286 (+20% YoY)

- F/L 모델인 쏘렌토 (\$4,856, +9% YoY), 카니발 (\$5,082, +24% YoY), K5 (\$4,494, +3% YoY) 인센티브 증가했으며, 신차인 K3는 감소 (\$3,570, -15% YoY)

▶ 전체 산업 대당 평균 \$3,602 (-3% YoY)

- Sedan \$3,453 (-7% YoY), SUV \$3,670 (-2% YoY)으로 SUV 중심 수요 성장 환경 속 시장 전반의 Sedan 재고 축소 노력의 결과가 보여지고 있음

- GM \$4,228 (-14% YoY), Ford \$4,374 (+2% YoY), FCA \$4,351 (-5% YoY), Toyota \$2,496 (-1% YoY), Honda \$1,965 (+2% YoY), Nissan \$4,325 (+7% YoY), Subaru \$1,165 (+9% YoY), BMW \$5,790 (+5% YoY), Daimler \$5,801 (+17% YoY), VW \$4,022 (+8% YoY)

- 브랜드별로는 SUV Mix를 끌어올린 미국업체들의 인센티브 감소가 확인되고 있고, 유럽/일본 업체들의 인센티브는 증가세

Compliance Notice

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1월 0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2018년 11월 0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1월 0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김준성)

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